



광주 광산구가 '이야기꽃도서관' 특화공간으로 꾸미고 있는 '누구나작가실' 내부 모습.

광산구립도서관, '문화 도서관'으로

이야기꽃·장덕·운남어린이·첨단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인문 예술, 테마공간 등 조성...스토리리뷰 따라 '도서관 투어' 추진

광주 광산구가 책 읽는 공간으로만 인식됐던 도서관을 색다른 체험과 즐길 거리가 가득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올 연말 완공 목표로 광산구 신가동 주택 재개발로 운영이 일시 중단된 신가도서관을 제외한 4개 구립도서관에 대한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진행중인 특화공간사업은 도서관별 이용자 욕구 및 각 도서관이 지닌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공간마다 테마·특징을 나타내는 고유 명칭 및 상징색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사례로 그림책 특화 도서관인 이야기꽃도서관의 특화공간 명칭은 '누구나 작가실'이다. '내 안에 피어난 꽃'이란 테마로 시민이 작가가 돼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꾸며 전시·공연 등이 가능한 '멀티스페이스(다용도공간)'로 설계했다. 시민 그림책을 활용한 디자인 QR(큐알) 벽화 등도 선보인다.
장덕도서관은 '모두모여', '우리 삶이 담긴 책'이란 테마를 담은 인문·예술, 장작의 소동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
공방과 같은 창작, 인문 모임, 토론, 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갤러리형 휴게 공간으로 조성해 도서관 이용객을 위한 휴식공간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책보고 시골'이라는 어린이, 다문화 특화 책놀이

터 선 보이고 있다.
어린이들이 편하게 등을 기대고 뒹굴기도 하는 등 자유로운 모습으로 책과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벽면, 책꽂이 등 공간 곳곳에 고래, 물고기 등 바다와 관련한 디자인을 반영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첨단도서관은 꿈을 실현하는 학습·진로 공간인 '꿈꾸는 시간'과 '빛나는 순간'이라는 테마를 부여했다.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의 학습실과 열람실을 밝은 색감과 조명을 통해 밝고 활력을 주는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공간의 테마는 '밝아늘의 빛나는 별'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시민, 청소년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등 상징색에도 공간별 특징과 테마를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이야기꽃 도서관은 세대가 다른 어린이(노랑)와 성인(빨강)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의미로 '주황', 장덕도서관은 인문·성찰을 상징하는 파랑과 열정·예술을 나타내는 '빨강'을 더한 '보라'가 상징색이다.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기쁨·에너지를 상징하는 '노랑', 첨단도서관은 사유·성찰·꿈을 뜻하는 '파랑'이다.
광산구는 아같은 '4관4색'을 콘셉트로 도서관별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해 특성화하는 '스페이스 브

랜딩' 사업을 마무리하고, 각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브랜드화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화돼 있는 4개 구립도서관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다.
2017년 이야기꽃도서관에 설치된 벽화에 담긴 이야기를 다른 도서관으로 확장하는 '스토리리뷰'가 대표적이다. '공간 슈퍼그래픽'을 활용한 이 벽화는 거울에 비친 내가 주인공이 돼 '희망의 빛'을 찾아 도서관으로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소녀가 희망의 빛을 찾아 파랑새와 모험을 시작해(이야기꽃), 다양한 책 속 이야기 안에서 빛을 찾기 위해 애쓰고(장덕), 가끔은 숨어있는 희망을 찾아 해맨(운남어린이) 끝에 결국은 내 안에 희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첨단)한다는 내용이다.
광산구는 이러한 전체 이야기를 4개로 나눠 각 구립도서관에 다양한 형태의 벽화로 새겼다. 이야기꽃은 AR(증강현실) 기술을, 장덕은 집중조명 벽화를 활용했고, 운남어린이도서관은 입체벽화, 이야기의 마지막인 첨단도서관은 거울벽화가 설치됐다. 이달 중 벽화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광산구는 벽화의 이야기를 따라 4개 구립도서관을 다니며 특화공간을 체험하는 '도서관 투어'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는 책만 읽는 곳이란 '낡은 틀'을 깨고 책도 읽는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집중 발굴·운영해 시민 참여와 활동의 필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광주 광산구는 "재난과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산구는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신체·사회적 요인 등으로 안전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 주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11월부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교육은 낙상사고·전기사용 등 생활안전, 자연재난, 심폐소생술 등 전반에 걸쳐 20여 가지 안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예방법을 다루고 있다.
동영상 시청·체험을 적극 활용하고 사전에 원하

는 분야를 신청받아 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해 교육 효과도 높이고 있다.
교육 완료 후에는 교육대상자와 기관(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 및 수업 만족도와 안전체감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내년 안전교육에 결과를 반영해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체감도 높은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청년 주도 광산구 청년정책, 우수성 입증

국정목표 실천 우수 경진대회서 '행안부장관상' 수상

광주 광산구는 "청년과 함께 만들고 추진한 '청년 정책'으로 '2022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정부 6대 국정목표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정책의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청년과 상생하는 삶과 일자리 정책 실현'으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분야에 응모해 1, 2차 심사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청년이 스스로 일과 삶에 대한 의지를 찾아가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청년 일자리 활동 거점인 '청청플랫폼'을 중심으로 청년 취·창업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고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대표적이다.

광산구는 또 중소기업 취업 연계, 청년이 실제 일터를 경험하며 구체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미래 삶 일 경험 지원',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기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창업 활력플러스'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도 성과를 냈다.

2021년부터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총회를 통해 청년이 직접 발굴하고 기획한 정책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실제 은둔, 고립 생활로 사각지대에 놓인 '니트 청년(NEET,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다지고 있으며, 전국 최초 '청년주거독립실' 조성, 청년의 불안감,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청년-마음소'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청년을 지키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일자리부터 건강, 주거, 문화 등 청년의 삶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제도·정책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보육 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 '대상'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보육 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에 수상해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집행관리, 어린이집 질 관리,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등 지표를 중심으로 보육 정책 전반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시도 주관 1차 평가와 보건복지부 평가 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총 23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광산구는 지난 2020년 '대상', 2021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의 쾌거를 이루며 전국 최고 보

육 정책 도시의 위상을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광산구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 강화 ▲보육예산 신속 집행 ▲국공립어린이집 12개소 확충 및 취약 보육 실시 ▲어린이집 182개소 안전점검 및 보육 교직원 안전교육 ▲코로나19 대응 정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3년 연속 보육 정책 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보육 현장의 교직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더해져 이룬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태권도 명예단증 받아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난 4일 빛고를 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도 제4차 국기원 승품·단 심사 현장에서 태권도 4단 명예단증을 수상했다. <사진>

명예단증은 국기원이 태권도 보급과 진흥발전에 이바지한 자에게 심사서 수여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기원장을 대신해 광주시 태권도 협회(협회장 이영석)에서 단증을 수여했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명예단증 수상을 계기로 지역 태권도의 저변 확대와 위상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